

순창 전통장 문화학교 전국 인기

전국 24개 초등학교 1080명 참여신청... 5월 현재 15개 학교 다녀가

순창군이 장 담그기 체험프로그램인 '전통장 문화학교'를 운영하면서 전통장 문화 확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전통장 문화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서울소재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장 담그기 체험을 제공하는 1박 2일 프로그램이다. 특히, 장 담그기 문화는 지난해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로 국가무형문화재 제137호로 인정받았다.

순창군은 2015년 서울소재 초등학교 5곳의 학생들을 유치해 전통장 문화학교를 시작했다. 도시 아이들의 반응이 높아 2016년에는 서울 소재 7개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난해는 서울 소재 20개 초등학교가 참여한 바 있다.

군은 올해 전통장 문화학교의 대상 학교를 서울시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으로 범위를 확대해 현재까지 전국 24개 초등학교 1,080명이 참여신청을 마쳤다. 5월 현재 전국 15개 학교가 전통장 문화학교를 다녀갔다.

전통장 문화학교는 전통장류업체를 방문해 직접 고추장, 간장 담그기를 체험하고 집밥을 먹는다.

이러 장류체험관에서 전통장 식생활 체험을 하면서 고추장을 이용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저녁을 먹은 후,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과 장기자랑, 순창발효소스토크를 방문해 VR콘텐츠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시골의 인심과 정취를 만끽하며 숙박을 한 후 다음날 아침 산책으로 이어지는 등 도시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특히 전통장 문화학교는 순창군의 전폭적인 지원이 따른다. 순창군은 참가 학생들에게 체험비와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하면서 전국에 전통장을 알리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의 전폭적인 지원 외에도 고추장 명인과 기능인이 모여 있는 '순창고추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순창군이 장 담그기 체험프로그램인 '전통장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츠를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시골의 인심과 정취를 만끽하며 숙박을 한 후 다음날 아침 산책으로 이어지는 등 도시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특히 전통장 문화학교는 순창군의 전폭적인 지원이 따른다. 순창군은 참가 학생들에게 체험비와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하면서 전국에 전통장을 알리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의 전폭적인 지원 외에도 고추장 명인과 기능인이 모여 있는 '순창고추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도 갖는다.

추장민속마을'이라는 인프라가 잘 구축된 것도 인기의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1997년에 조성된 민속마을은 집집마다 한옥으로 지어져 전통장을 담그는데 더 없이 좋은 공간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전통 장 담그기 문화는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으로 보존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 장류의 본 고장인 순창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춘향골 복숭아 첫 수확

안흥섭 씨 시설하우스 상품 전량 가락동농산물 시장 출하

남원지역 시설하우스에서 재배 생산되며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춘향골 시설하우스 복숭아가 지난 24일 수확을 시작으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돋우고 있다.

시설재배 복숭아는 노지재배와 달리 휴면이 완료되는 12월 중순부터 시기별 온도와 수분관리 등 고도의 재배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또, 비를 차단할 수 있어 품질저하를 방지할 수 있고 병해충 발생을 줄일 수 있어 고품질 복숭아를 생산할 수 있다.

이날 첫 출하한 복숭아는(백도) 금지면 입암리 안흥섭 씨의 시설하우스(4,000여㎡)에서 재배된 복숭아로, 현재 춘향골 복숭아란 상표로 전량 서울 가락동농산물 시장에 출하되고 있다.

으며, 당도 12브릭스(Brix) 이상으로 가격은 2.5kg 상품이 6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시설하우스 복숭아 재배는 전국에서 남원이 유일하며, 올해 22농가가 10ha에서 2.5kg들이 5만여 상자를 수확해 14억~15억원의 조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6월 말부터 수확하는 춘향골 노지 복숭아도 261농가가 310ha를 재배하고 있다.

춘향골 복숭아가 맛이 뛰어난 것은 비옥한 토양과 일조량이 풍부한 지리적 여건과 농가의 뛰어난 재배기술이 어우러져 아삭한 식감과 당도가 높기 때문이다. 남원시에서는 복숭아를 지역특화 작목으로 선정해 기술지도와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금지면 입암리 안흥섭 씨의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된 복숭아가 첫 수확중이다.

한편, 복숭아는 다량의 단백질과 아미노산, 유기산, 비타민A와 비타민C가 매우 많고, 면역기능 강화, 숙취해소와 니코틴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K-water 섬진강지사는 최근 섬진강댐 물문화관에서 순창군 구림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물드림캠프'를 실시했다.

소중한 자원 '물' 제대로 알자

K-water 섬진강지사, 구림초등학교 물드림캠프

K-water 섬진강지사(오승환 지사)는 최근 섬진강댐 물문화관에서 순창군 구림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 40여명을 대상으로 '물드림캠프'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물드림캠프'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물관련 이론교육(시설견학 병행) 및 과학창의실험(친환경수차발전기 만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날 진행된 체험 프로그램은 친환경 수차발전기 만들기 등 눈으로 직접보고 만질 수 있는 과학시간으로 꾸며져 큰 호응과 관심을 얻었다.

오승환 지사는 "날로 부족해지는 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이 무척 중요하다"면서 향후 물드림 캠프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아이들에게 과학적 지식과 더불어 물의 소중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흥영 기자

남원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교육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실시

남원시가 사회 고령화의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남원시는 27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사회복지 민관협력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시 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민간 사회복지 종사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국 우리가 만들려는 복지 모습은?'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사업가 양원석 푸른복지 사무소장을 초청해 사회복지현장에서 어떤 가치와 철학을 바탕

으로 어떠한 복지를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종사자들은 "앞으로도 민관이 더 협력하고 상호 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업무수행 역량강화를 강화할 수 있는 지식과 실천기술을 공유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강령주 주민복지과장은 "갈수록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복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오늘 교육이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와 민관이 더 협력하는 기회가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지수가 높은 남원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역 매아리

춘향제 자원봉사단 해단식

제89회 춘향제 자원봉사단은 27일 지리산소극장에서 배종철(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춘향제전위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가졌다.

자원봉사단은 89회 춘향제에서 연인원 1,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해 축제 현장 곳곳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에게 친절과 미소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축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해단식에서는 자원봉사 결과보고와 축제 기간 중 자원봉사 활동 모습이 담긴 동영상 상을 시청하며 축제의 여운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 봉사자 5명이 남원시장 표창을 받는 등 모두 28명이 상을 받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친절마일드 향상 교육

임실군은 최근 군민들에게 감동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마일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 대한 해결능력을 높이고 갈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 드림은 HRD 컨설팅 박미진 대표를 강사로 초빙하여 감정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관계 향상으로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금순 민원봉사과장은 "민원인의 요구가 복잡·다양해지는 현 상황에서는 민원인의 감정이해 등을 교육함으로써 민원인과 공무원이 함께 만족하는 민원행정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신제품 상추 보급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승)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종한 '진미적치마' 품종을 인계면 싹채소 작목반에 시범 보급하기로 했다.

인계면의 소득 작목인 모든 싹채소 중 주품목인 상추는 그동안 여름재배가 어려워 휴경을 하거나 생산량이 적어 소득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종한 '진미적치마'는 여름철 고온기 생산량이 1ha당 13.2톤으로 기존 재배했던 품종 '열풍'보다 수량이 34%정도 많고 무름병 등에도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향산화 효과가 뛰어난 안토시아닌 함량이 2.86mg/100g이고 씹는 맛과 식미감도 기존의 '열풍' 품종보다 우수하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